

보도시점 : 2026. 10. 20.(화) 06:00 이후(10. 20.(화) 석간) / 배포 : 2026. 10. 19.(월)

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하지 않은 이용자는 10월 26일까지 현행화하세요!

【관련 국정과제】 60.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

- 카드 재발급 등으로 등록된 번호와 실제 카드번호가 다르면 환급 차질
- 10월 26일까지 모두의카드 누리집·앱에서 등록된 카드번호 확인 후 다르면 변경 필수

- 모두의카드 이용자 중 아직 카드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이용자는 차질 없는 교통비 환급을 위해 10월 26일까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.
 - 번호 확인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사용 중인 카드 번호가 다르면 모두의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사용 중인 카드번호로 변경해야 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김용석, 이하 대광위)는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,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.
 - 추경 후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모두의카드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정보(번호)와 실제 사용 중인 카드의 정보가 동일해야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, 대광위는 카드사와 협력하여 지난 6월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드정보 현행화를 수차례 안내*해 왔다.
- * 카드정보 현행화 관련 보도자료 배포('26.6.9.), 안내 문자 등 발송(3회), 카드사 및 모두의카드 누리집·앱에 안내문 게시
- 6월부터 많은 이용자가 카드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나, 일부 이용자는 아직 현행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 이에 대광위는 카드정보 불일치로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, 이용자분들께 카드정보 확인 및 변경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밝혔다.

- 카드정보 변경은 10월 26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며, 모두의카드 누리집 (korea-pass.kr) 또는 앱에 로그인한 뒤,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 사용 중인 카드번호를 비교하면 된다.
 - 만일, 등록된 번호와 사용 중인 카드번호가 다르면 현재 사용 중인 카드 번호로 변경해야 하며, 번호가 같으면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.
- 10월 27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시스템 개선 및 점검으로 모두의카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·변경을 할 수 없다.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들과 협력하여 시스템 점검을 밤늦게 진행하며, 종료 시각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 - 점검 중에도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, 교통비 환급금도 정상적으로 적립된다.
-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“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에 협조해 주신 많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며, “아직 현행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10월 26일까지 꼭 현행화를 완료하여 교통비 환급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주시길 바란다”고 하였다.

		
	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	앱스토어(아이폰)
▲모두의카드 누리집	▲모두의카드 앱	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천재민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래 (044-201-5087)
			주무관	박영서 (044-201-5022)